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99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4,35-41)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4,35-41

공관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서의 집필연대가 제일 앞선다는 것은 통설이다. 문체와 표현이 단순하고 복음서들 중 분량 면에서도 가장 짧지만, 구조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곳에서의 마지막 활동들과 수난과 죽음과 부활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볼 때 복음서 후반부의 수난기에서 실제로 불과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룬 내용이 복음서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서만의 고유한 신학 사상과 메시지라면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몰이해 속에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의 전개와 메시아 신분의 비밀이다.

이런 배경을 유념하고 복음서를 대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 예수님의 치유와 행적에 관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확인하는 능력에 찬 행위들로 묘사되는데, 이는 하느님 나라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다. 이전까지는 비유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감추어져 있던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의 치유 활동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이다. 악령과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계속해서 보이시는 치유 행위들은 죽음의 세력 안에서까지도 인간을 건지시고 생명을 부여하고 계심을 가르친다. 마귀를 제압하심으로써 하느님의 힘을, 치유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가시화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의 행위를 세속적인 기적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복음의 제자들의 배가 호수에서 극심한 풍랑에 위태롭다. 물결이 덮쳐 뒤집힐 지경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런 돌발적인 자연 현상에도 경험이 있을법한 베드로와 제자들이지만 아득할 뿐이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를 쫓아내실 때처럼 풍랑도 꾸짖어 잠재우신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 깔려있다. 먼저 거센 풍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다음에 잔잔해진 물결을 보고 느끼는 다른 두려움, 즉 한마디 명령으로 큰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서 갖게되는 경외심이다. 이는 제자들의 체험이며 동시에 교훈이다. 믿음의 상실은 곧 두려움을 날게 된다는 것이다. 믿음의 상실은 곧 두려움을 날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료하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굳은 믿음과 말씀 생활로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능력은 확고한 믿음이 전제될 때에 현실화되는 삶의 치유(회복)와 영적 성숙(전인적 성장)이기 때문이다.

(수원교구 6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저자

역대기계 역사가라고 불리는 유배 이후의 역사가.

시대 배경

기원전 350년에서 기원전 250년 사이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시대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할 때까지의 팔레스티나 상황을 알려 줍니다.

편집목적

이 책은 유다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주체성을 찾기 위해 제의적, 사회적 개혁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씌었습니다.

주요 내용

유배 생활로부터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즈1-6장), 에즈라의 활동(에즈7-10장;느헤 7,73-10,39), 느헤미야의 유다 통치(느헤1-13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하여 봉헌합니다.

## 공지사항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예수님의 마음을 닦고 살아가도록 성체조배와 평일미사를 많이 참석하십시오.

\*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마르 6,30-34

다음 달 성경말씀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쳐 주시느라 식사하실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듯 따뜻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웃에게 이런 연민의 정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정수 현정 수  
정수 현정 수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증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five lines of music. The first line is a prelude. The second line contains the lyrics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with chords G, D, Bm, G, Em, A7. The third line contains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with chords B, A, Bm, G, Em, A7. The fourth line contains '증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with chords G, B, Em, A7, B, D7. The fifth line contains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with chords G, D, Em, G7, A7. The sixth line contains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with chords G, B, Em, A7, B. The seventh line contains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with chords G, B, Em, A7, B.